



열정과 도전 정신이 빛은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 역대 수상자들의 과거와 현재

젊음의 초상이여!

유인화 · 경향신문 기자



문

문화관광부가 1993년부터 시행한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은 올해 10월 ‘문화의 날’에 12회를 맞는다.

‘젊은’ 예술가라고 해서 그들의 나이가 젊은 건 아니다. 20대부터 30대까지의 주목받는 예술가들이 그 대상이다.

시상부문은 문학(시·시조·소설·희곡·평론·아동문학·수필·번역 등), 미술(회화·조각·서예·공예·건축·사진 등), 음악(성악·작곡·지휘·기악 등), 전통예술(판소리·작곡·기악연주 등), 연극(연극·뮤지컬·인형극·마임·연기·극작·연출·평론·무대장식 등), 무용(무용·안무·평론 등), 영화(연기·연출·시나리오·평론 등), 대중예술부문(연예·만화·연기·가창·창작 등) 등 총 8개이다.

각 부문별로 1명씩만 수상자를 선정하며, 수상자에게는 문화관광부 장관명의로 상패와 부상이 수여된다. 수상후보자는 시상 두 달 전에 추천받아야 하며, 문화관광부 장관도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심사위원은 부문별로 각 2~5인 규모로 구성하고, 매년 문화관광부가 각계 중진급 인사 중에서 위촉한다. 심사위원회에서는 부문별로 후보자의 공적을 심의하고, 2배수 범위에서 문화관광부 장관에게 수상후보자를 추천한다. 이후 문화관광부 장관

은 심사위원회에서 추천된 2배수의 후보자를 참고로 하여 수상자를 결정한다. 역대수상자는 도표와 같다. 수상자들의 과거와 현재 모습은 어떤지 부문별로 1인씩 조명해 본다.

●●●
문학 1993 소설가 신경숙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 첫 수상자인 신경숙 씨는 수상 당시인 1993년에 만 서른 살이었다. 1993년 발표한 소설 『풍금이 있던 자리』로 유명해진 그는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을 비롯해 각종 상을 휩쓸었고, 이후 그의 작품과 행적은 언제나 뉴스거리로 떠오르곤 했다. 그가 1999년 시인이자 문학평론가인 남진우 씨(44)와 결혼할 때도 유명세를 치렀다. 언론에 노출되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했고, 그런 노력 덕분에 언론에 노출된 그의 기사는 대부분 극히 적은 분량이었다.

1963년 전라북도 정읍에서 출생한 그는 서울예전 문예창작과 졸업 후 85년 『문예중앙』 신인문학상에 중편 『겨울의 우화(寓話)』로 등단했다. 섬세한 문체와 아기자기한 심리 묘사, 그리고 잊혀져가는 아련한 옛이야기를 주제로 한 그의 작품세계는 90년대에 들어와 주목받았다. 특히 두 번째 작품집 『풍금이 있던 자리』가 그 발판이 됐다. 영화로도 성공한 그의 소설집 『풍금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 역대 수상자 현황

부 연 도 수 (회수)	문학	미술	음악	전통예술	연극	무용	영화	대중예술
1993(1회)	신경숙(소설)	류 인(조각)	임한정(지휘)	-	김미리(연출)	전미숙(현대무용)	박광수(감독)	
1994(2회)	윤대녕(소설)	이종현(서양화)	백혜선(기악)	-	최용훈(연출)	양성옥(무용가)	이명세(감독)	김현옥(영상 등)
1995(3회)	이인희(소설)	조덕현(설치미술)	정치용(지휘)	-	김미도(평론)	한상근(안무)	박중원(감독)	-
1996(4회)	김소진(소설)	정환선(판화)	김혜정(기악)	-	김광보(연출)	이재산(무용가)	강우석(감독)	설운도(가수)
1997(5회)	김인애(동화)	강익중(서양화)	김동규(성악)	-	조영규(극작)	강미리(안무)	변영주(감독)	신호범(가수)
1998(6회)	함민복(시)	이재효(조각)	김기범(작곡)	최진숙(국악)	안석환(배우)	강수진(발레)	홍상수(감독)	김미희(개그우먼)
1999(7회)	박서원(시)	이 불(설치미술)	진은숙(작곡)	원 일(국악)	박근형(연출)	문훈숙(발레)	박곡지(영화편집)	안치현(가수/작곡)
2000(8회)	한 경(소설)	배준생(서양화)	고성현(성악)	정수년(국악)	박동우(무대미술)	이원국(발레)	박찬욱(감독)	김현철(가수/작곡)
2001(9회)	니희덕(시)	허 진(동양화)	이신우(작곡)	김용우(국악)	박명성(뮤지컬)	이해권(현대무용)	곽경택(감독)	안재욱(가수/연기)
2002(10회)	조경란(소설)	최인선(서양화)	연광철(성악)	유경화(국악)	서주희(연기)	이윤경(현대무용)	이정행(감독)	이은미(가수)
2003(11회)	박성원(소설)	류근택(동양화)	신동일(작곡)	이지영(국악)	양정용(연출)	신종철(발레)	봉준호(감독)	윤도현(가수)
81명	11	11	11	6	11	11	11	9

이 있던 자리』는 읽을수록 독자의 감수성을 일깨우는 아릿한 수채화와 같다.

그의 소설에선 삶의 비극, 잃어버린 과거의 탐색 등이 주요 모티브가 되고 있다. 그의 글은 치밀한 구성과 차분한 관찰력, 예민하면서도 따뜻하고 포근한 시선, 일상의 무심한 흐름에서 잡아내는 그만의 통찰력 등으로 반짝반짝 빛난다. 그의 소설을 읽으면 각 장면마다 구체적인 내용들이 시각적으로 형상화되어 지면에 떠오른다.

『풍금이 있던 자리』에선 소리가 들리고 『깊은 슬픔』에서는 속절없이 거꾸 무너지는 장면이 영상처럼 스쳐간다. 『딸기밭』에선 레즈비언의 누앙스를 풍기는 여성들이 딸기밭에 쓰러지고, 짓뭇갠 딸기들의 함성이 새빨간 빛으로 표출된다. 각 작품에 등장하는 여인들의 슬프고도 괴로운 운명을 단정하게 형상화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그가 1995년 냈던 첫 산문집 『아름다운 그늘』에 새 표지만 입혀 같은 제목으로 다시 출간을 하기도 했다. 이 산문집은 그의 삶속에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엮은 책인데 올보 어머니, 말이 없던 아버지, 여고 때 국어선생님, 연님이 언니, 출판사에서 만난 미스 리 등 기억 속에 살아있는 사람들을 문장으로 끌어냈다. “나는 그녀들을 쓰기 시작했다. 함께 살아 있지 못한 슬픔과, 서로 손을 잡을 수 있었을 때 손을 잡아주지 못한 자책과, 사유의 부족이 그녀들을 새로이 솟아오르게 하지는 못했지만 어느 날 나는 한 문장을 찾아내었다.”며 공장 노동자로 일할 때 만났던 ‘그녀들’의 죽음과 대학 때 만난 어느 친구의 죽음 등이 그의 글쓰기에 영향을 끼쳤음을 밝혔다. 그의 작품에 나타난 ‘여성’들이 왜 그토록 아프게 다가왔는지 알 수 있는 고백이었다.

미술 1999 설치미술 작가 이불

이불 씨(40)와는 2년 전 만난 적이 있었는데, 솔직하고 스펀지 없는 사람이었다. 매년 미술계를 돌아보는 기사가 나갈 때면 언제나 단골손님으로 꼽히는 ‘잘 나가는’ 작가. 기존 관념을 깨는 도발적이고 창의적인 상상력으로 해외에서 더 유명한 한국의 대표적 설치미술작가. 미술장르를 통틀어 미술계에서 국제적인 지명도가 가장 높다고 생각되는 작가. 지난해 그는 국내

미술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펼친 조사에서도 국제적인 명성을 가장 많이 얻었다고 생각하는 작가로 선정됐다. 일 년에 10여 차례의 해외전시를 준비해야 하니 그럴 만도 하다.

10년 전, 경기도 용인 마북리 한국미술관에서 여성 미술가들의 힘이 분출하는 전시가 열렸다. 특히 겹겹이 입고 나온 옷을 하나씩 벗어던지다가 급기야 몸을 묶은 쇠사슬을 끊어버리는 그의 퍼포먼스는 화제를 몰고 왔다.

이후 그는 1999년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특별상을 받으며 한국을 대표하는 현대미술작가로 뿔뿔히 났다. 이 작업을 통해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도 수상하게 되었다.

그는 현대문명을 독특한 시각으로 날카롭게 비판하고, 여성성을 강조하는 작품세계를 보여준다. 초기에는 누드인형으로 여성의 정체성을 고발했고, 자기 자신이 누드로 행진하며 쇠사슬을 끊는 퍼포먼스 등으로 인간과 사회를 억압하는 모든 것에 저항, 미술계에 신선한 충격을 던져 주었다. 1997년 뉴욕현대미술관에서 6주간 초대전을 가질 때는 썩어가는 생선에 화려한 구슬장식을 꽂아 충격을 준 것도 여성성에 대한 그의 진지한 탐구의 일환이었다.

그의 최근 작업은 크게 세 범주로 나뉜다. 생선에 반짝이(시퀀)를 달아 썩어가는 과정을 작품으로 삼고, 만화영화에 등장할 법한 로봇과 인체를 결합시킨 조각을 내놓고, 일상의 여흥인 노래방을 엄숙한 전시장에 끌어들이는 작업이다.

음악 1994 피아니스트 백혜선

백혜선(39)이 누구인가.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1991년)와 <차이코프스키 콩쿠르>(1994년)의 입상으로 세계적 피아니스트로 인정받은 그는 1994년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을 받았다. 강렬하면서도 섬세한 표현력으로 사랑받아 온 그는 1995년 한국에서 성공적인 데뷔무대를 치른 후 국내외에서 연주회와 독집앨범 ‘데뷔’, ‘사랑의 인사’로 ‘백혜선 돌풍’을 일으켰던 연주자이다.

지난 1999년 비올리스트 최은식 씨(37·서울대 교수)와 결혼하자 음악계에선 그해의 최대 음악뉴스라고 흥분해 했었다. 이후 그는 2001년 첫 아기가(아들) 출산을 앞두고 국내 6개 도시 연주와 일본 공연을 갖는 등 왕성한 활동을 과시했다.

지난해 11월에는 4년 여 만의 앨범인 3집 앨범 「사랑의 꿈」을 선보였다. 그는 두 남매의 엄마가 됐다. 큰 변화가 음악철학에도 변화를 주었다고 했다. “뭔가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지만, 이전에 채워지지 않았던 곳까지 이제는 확 난 느낌이에요. 둘째아이가 태어난 뒤 음악에 대한 열정이 더욱 절실해졌어요. 음악 안에서 삶이 다 피어나게 하는 것이 앞으로 제 바람이기도 해요. 특히 서정적·기교적인 것을 나누기보다 작품의 깊이를 표현하는 데 열중하고 싶어요.”

전통예술 1999 국악 작곡가 원일

386세대 원일 씨(37)는 ‘국악 작곡가’라는 말을 즐기지 않는다. ‘한국음악 작곡가’라면 모를까. 한국에서, 한국 사람이 만든,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듣는 ‘음악’ 작곡가이길 바랄 뿐이다. 한국사람이 작곡하는 음악은, 그 음악이 전통음악의 영향을 받았든, 서양 음악의 문법에 기초했든, 당연히 ‘한국음악’이라는 주장이다.

한국음악 작곡가인 그의 작품 세계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1997년 출판한 앨범 「아수라」이다.

매니아들 사이에서 상당히 인기를 얻었던 첫 작품집 「아수라」는 구음과 랩, 록 같은 최신 대중음악 문법을 다양하게 사용했고, 시 낭송도 앨범에 수록했다. 동원된 악기만도 아코디언과 더블 베이스, 피아노, 전자 기타, 신디사이저 같은 서양 악기서부터 징, 팽과리, 해금, 피리, 장구 같은 국악기까지 다 종다양했다.

중학교 때까지 서양 악기 클라리넷을 공부하다 국립국악고등학교에 진학하며 태평소와 피리를 전공한 그는 징·팽과리·장구·북으로 이뤄진 사물놀이 대신 다양한 타악기로 구성된 소리그룹 푸리를 1993년에 창단했다. 푸리는 창단 당시 일본에서 주로 활동하느라 한국무대에 설 기회가 적었지만 국악을 바탕으로 한 실험적 사운드를 도입해 창작 타악을 개발하는데 주력했다. 그 뿐만 아니라 그는 국악작곡가로 만족하지 않고 무용·연극·영화·뮤지컬 음악을 작곡하며 장르를 넘나들었다.

연극 1999 연극연출가 박근형

연출가이자 극작가인 박근형 씨(41)는 항상 생각에 취한 사람 같다. 서울 대학로에서 그를 처음 만나던 때와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연극 「대대손손」을 올리던 지난해 12월까지, 그는 항상 조용한 얼굴에 많은 생각을 집어넣고 있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그는 그럴 것이다.

1998년 혜화동 1번지에서 공연되었던 파격적인 부조리연극 「쥐」는 그가 쓰고 연출한 작품인데, 그의 작품세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작품이기도 하다. 경제가 어렵고 연극 흥행이 안 될 때인데도 그는 생각이 많은 가족연극을 만들어 가족의 문제에 또 다른 의문을 제시했다.

「쥐」는 물난리로 피폐해지고 쥐들만 창궐하는 도시의 어느 구석방에 지역방송을 차려놓고 찾아오는 사람들과 심지어 갓 태어난 아기마저 잡아먹으며 겨우 살아가는 한 식인가족의 이야기다. 그는 처음 작품을 구상할 때 “내가 살아가고 행복을 느끼는 것은 주변 사람들의 희생이나 아픔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고 털어놓았다.

2001년 초 박해일, 고수희, 천정하, 정희정, 엄효섭 씨 등과 극단을 만든 뒤 「청춘예찬」, 「대대손손」, 「집」, 「삼총사」, 「달러스 초이스」 등 잇따른 ‘박근형 브랜드’로 화제를 모았고, ‘사람들 이야기를 담는 연극, 사람들이 살면서 필요로 하는 생각들의 단서를 보여주는 연극’을 추구하는 연출가로 주목을 받았다. 그는 연극을 통해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아픔을 꾸밈없이 제 공하는 것이다.

무용 1999 유니버설 발레단장 문훈숙

1999년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 수상자인 문훈숙 유니버설 발레단장(41)은 지난해 3월 프랑스 공연을 마치고 돌아와 “2001년 미국 공연과 비교되지 않을 만큼 까다로운 공연이었다.”고 말했다. “한국창작발레 「심청」도 공연했는데, 우리나라 동화를 발레로 했음에도 외국인들의 반응이 좋았다.”며 “앞으로 「심청」에 이어 ‘춘향’과 ‘홍부와 놀부’ 등 고전 3부작을 창작발레로 집대성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또 발레스쿨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러시아·프랑스·영국 등 유럽 뿐 아니라 중국에도 발레학교가 있는데, 한국엔 정규코스인 발레학교가 없다는 지적이다. 또 무용수를

육성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안무가를 키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올해는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유니버설발레단 창단 20년 기념공연을 계속하고 있다. 「돈키호테」, 「지젤」, 「호두까기인형」, 「심청」, 「라 바야데어」, 「백조의 호수」를 올리고, 84년 창단공연이었던 「신데렐라」를 오는 10월에 다시 올려 창단의 의미를 기린다.

유니버설발레단은 국내 문화예술계 외국인 용병의 효시다. 60명의 단원 중 20여명이 외국인이다. 예술감독을 비롯해 무대, 의상, 연습실 피아니스트, 발레지도교사 등이 외국인이다. 이는 서양예술인 발레의 특성상 외국인에 대해서까지 선택의 폭을 넓혀야 숙련된 전문가들을 발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영화 2000 영화감독 박찬욱

영화 「공동경비구역 JSA」, 「복수는 나의 것」, 「올드 보이」 등을 감독했다면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할까.

지난 5월 제57회 칸영화제 심사위원대상을 따낸 박찬욱 감독(41)은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의 무계를 더해준다. 이번 수상으로 대한민국 대표감독이 된 그는 흥행과 비평의 일석이조를 거둔 감독이다.

그에게 첫 대중적 흥행과 명성을 안겨준 「JSA공동경비구역」과 「올드 보이」에 이르기까지, 흥행과 비평 면에서 동시에 성공한 그는 할리우드 진출 가능성 1호 감독으로도 손꼽히고 있다.

이번 칸영화제 수상을 “서양에서 만들어진 장르를 가지고 새로운 영역을 개척했기 때문”으로 풀이 한 그는 “영화제 기간 중 할리우드 진출과 관련된 제안을 받았으나 최종편집권을 감독이 갖지 못하는 등 제한요건이 많아 갈등이 많다. 할리우드에 간다면 웨스턴이나 SF물을 하고 싶고, 한국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을 굳이 할리우드에 가서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독특한 상업영화를 만드는 감독이 되고 싶다.”는 그는 “입장료를 받고 내 영화를 관객에게 보여준다는 뜻만이 아니라 영화를 함께 만든 배우와 스태프들에게 흥행만큼 자신감과 용기를 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상업감독으로서 흥행에 더욱 신경을 쓰게 된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칸영화제에서 돌아오자마자 복수 3부작의 완결편인 차기작 「친절한 금자씨」(가제)의 주연으로 영화배우 이영애를 캐스팅

하기로 했고, 8월말 개봉되는 아시아 3개국 유니버스 호러 「쓰리 몬스터」 후반작업도 하고 있다.

●●●
대중예술 2003 가수 윤도현

윤도현(32)은 참으로 많이 알려졌다. 1994년 창단된 윤도현 밴드는 인디록밴드로 사랑받다가, 2002년 한·일월드컵 때 ‘오~ 필승코리아 (오~ 미스코리아)’로 정신없이 컸다(?).

월드컵 16강이 확정된 2002년 6월 14일 밤, 온 나라는 ‘대한민국 구호와 ‘오~ 필승 코리아’ 노래로 뒤덮였다. ‘오~ 필승 코리아’는 원래 우리 응원단이 지난 1997년 도쿄에서 열린 프랑스 월드컵 지역예선 한·일전을 앞두고 300만원을 들여 자체 제작한 음반에 처음 실렸던 노래다. 다른 가수들이 월드컵 때문에 손 놓고 있을 때 윤도현은 가요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월드컵이 시작되고 나서 더 바빠졌다.

그가 부른 붉은 악마 응원가 ‘오 필승 코리아’와 ‘아리랑’은 온 국민의 노래가 됐고, 광고와 방송국 그리고 축구 프로그램 배경음악으로 하루에도 수십 번씩 들을 수 있었다. 두 곡의 노래 덕에 그는 한국전이 있는 날마다 광화문, 서울시청 앞을 비롯해서 3,4개의 행사를 뛰어나다며 이름을 알렸다. 월드컵기간 중인 6월에는 뮤지컬 배우와 결혼식을 올리기도 했다.

월드컵이 끝나고 나서도 여기저기서 그를 찾는 곳이 많았다. 2002년 4월부터는 TV 프로그램 <윤도현의 러브레터> 진행자로 현재까지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으며, 「뚜껑 열리는 라이브 콘서트 만들기」라는 제목의 책을 통해 윤도현 밴드 전국순회공연 논의과정부터 공연 종료 보도자료까지를 한 장으로 정리한 ‘전국투어 180일’도 공개됐다. 윤도현은 우리 시대의 문화코드를 반영한 상품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동안 월드컵 가수라는 이미지를 벗기 위한 콘서트를 강행하느라 많이 지쳤어요. 올해는 좀 쉬면서 재정비를 하고 싶군요. 아직 구체적인 건 결정되지 않았지만 10년 앞을 바라보고 유럽 쪽 진출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음반은 한국어와 영어 앨범을 동시에 발매할 예정입니다. 항상 새로 시작하는 기분으로 음악을 하고 싶습니다.” 🌈